

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슬직, 대담한 性

하루 진료가 끝날 무렵의 어느 날, 60대 후반
의 노신사 두 명이 상가된 얼굴로 병원에 내원했
다. 친구사이로 보이는 둘은 오랜 망실의 끝에 찾
아온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네가 먼저 말해
라'는 식으로 서로의 어깨를 툭툭 때밀었다.

창피하다고 감추지 말라

남자라면 누구나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성기능
에 더욱 신경을 쓰지만, 그것을 해결하려 병원을
찾는 것은 상당히 망설여지고 힘든 것이 현실이

'위대한 알약의 힘' 받기부전은 없다

다. 그들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 하던 중에 '비
야그라를 한번 먹어보자'는 결론을 내고 찾아온
것이며, 맨 정션에는 용기가 안나 술 한 잔 먹고
느막하니 왔다고 멋쩍은 듯 얘기했다.
비아그라를 비롯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가 출시된 지 어언 10년이 되었다. 그 종류도 차
츄 다양해져 국내에 현재 5종이 시판중이다.
발기부전 환자에게 '간편하게 알약 하나로 발
기가 된다'라는 것은 당시에 대단한 '사건'이었
다. 그것의 출현 이전에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
음경에 직접 주사를 맞는 등의 방법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매번 발생하는 약간의 통증과 번
거로움은 어쩔 도리 없이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주목을 받고 세상에 나온 경구치료제
가 발기부전 환자 전부를 만족시킬 순 없었다.

그 효능에 만족 못하는 중증의 발기부전 환자는
불편하더라도 다시 발기부전제 등의 예전 방법
으로 돌아갔고, 그 약물 특유의 부작용인 홍조,
두통 등으로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도 생겨
났다.
또한 심장병이나 심한 고혈압 등의 금기사항
을 가진 사람은 복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지니
고 있었다. 어쨌든 성 의학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경구치료제의 출현은 남성 성기능 장애의
치료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고, 비용 효율적인
발기부전 치료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성과 관련된 문제는 감추려 들고 창피
해 한다. 어렵사리 병원에 온다 하더라도 담당하
지 못하고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한다. 병원에 올

때까지 환자를 망설였는지, 누가 볼까 무서웠다
등의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의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얼마나 폐쇄적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하는지 의사로
서 답답할 때가 많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발기부전도 나이 들
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어디에도 털어놓기 힘든 노년의 애로
점을 살펴 사회적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누구도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 않은가?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하자
남성의 영원한 화두인 발기부전, 그것을 예방
하고 노년에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평소에 적절한 운동, 금연 및 금주를 실천하고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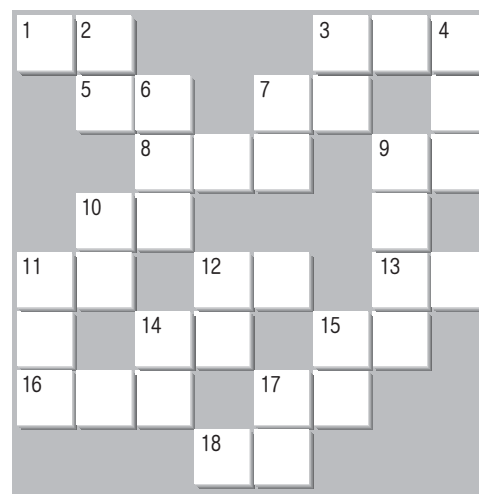
5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
고 있는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뽐내었습니다.
'신형연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선수는 맨체스
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지난 17일 밤(이하 한국시
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Bolton 유나이티
드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전반 14분 선
제골과 전반 25분 팀의 세 번째 골로 연속 득점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지성 ② 설기현 ③ 이영표 ④ 이종국

참어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
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 2명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43 >

→ 가로풀이
1. 유도 경기에서 내리는 관정의 하나. 공격 기술
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을 때 누르기를 선언 후
25초 이상 25초 미만인 지날 때 내려지는 것으
로, 판정에서 절반보다 한 단계 낮은 점수, 3. 일터
로 근무하려 나가는 것과 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버스, 5. 지나
치게 믿음. 약효에 대한 ~은 글뭍이다. 7.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해 외국 선박의 출
입을 허가함. 또는 그 항구. 8. 영화나 텔레비전 프
로그램 등의 내용을 선전하기 위해 그 내용의 일
부를 뽑아 모은 것. 9.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정 또는 대립 관계에 있
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 → 간첩, 세자. 10.
이른 시기. 목표를 ~에 달성하다. 11. 말이나 행동
이 예의에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인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지만

길 좁 문졌습시다. 12.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서
로 통하지 않도록 막음. 또는 그렇게 하는 일. 13.
산 속에 숨어 살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14.
나무로 된 갈. 주로 검술을 익힐 때에 쓴다. → 목도.
15. 화살이나 총알 등이 겨냥한 곳에 바로 맞음.
16.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매출 모집 등을 주선하
는 회사를 이르는 말. 17.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
地)의 사정을 살핀. 18. 야구에서 주자가 어느 누에
서 다음 누로 달리는 일. 1번 타자는 보통 ~ 플레이
에 능하다.
↓ 세로풀이
2.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보람
이나 좋은 결과. 그 일은 과급 ~가 크다. 3. 배가 항
구를 떠나감. 배의 ~을 급지하다. 4. 기업체 등에
서 부지런히 일해 얻은 소득으로 일하는 사람. →
노동자. 6. 새로 제작되어 성능이 뛰어난 항공기.
공군은 주력기를 ~로 교체했다. 7. 책이나 과정 등



방출 자 작 극 투
석 유 악 감 정
부 동 항 무 피 처
창 생 도 피 처
중 생 진 음 모
국 부 근 경 악
적 토 마 개 회
<함께 풀어봅시다 242회 정답>
를 인도하고 교회나 교구의 관리 및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 15. 성명, 소속 등을 적어
서 달고 다니는 형질 또는 종이나 나무쪽을 이르
는 말. → 이름표. 17. 딱이나 쌀을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
▲ 지난주 정답자
김화성·광주시 북구 연제동
최준혁·광주시 북구 두암동
▲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
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바둑소식
김수용, 신예프로 10결전 첫승
김수용 초단이 최근 서울 스카이라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
스배 신예프로10결전 B조 본선리그에
서 이재웅 5단을 15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첫승을 신고했다.
김 초단은 이 승리로 올해 6승4패를
기록했다. 김 초단은 지난해 원외배
본선에 오른 데 이어 올초 명인전 예선에서
서봉수 9단, 김민수 7단 등을 제압,
예선결승까지 진출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대회는 만 25세, 5단 이하의 기사
들만 참가한다. 모두 12명의 신예 기사
들이 A, B 두 개 조로 나눠 리그전을 벌
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결정적인 패착 8보(113~122)
백 김상표 4단 <운암중 교사>
흑 정갑면 4단 <진흥고 교사>
전보에서 정갑면 4단이 쉬운 수
를 놓치는 바람에 백
으로 막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이다.
형세가 유리하면 대개는 타협을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김상표 4
단은 여기에서 승부를 끝내려고 마
음먹은 사람처럼 가차없이 칼을 휘
두르고 있다.
궁지에 몰린 정 4단은 흑 113으로
붙이고 나서 얼럭 115로 끊어냈는데
이 수가 지옥으로 들어가버린 천하

굿모닝 잉글리쉬 <863>
Let's get the show on the road
자, 떠남시다
A: It's already past nine.
B: Is everything ready?
A: Yes, everything is packed.
B: Good. Let's get the show on the road.
A: 벌써 9시가 지났어.
B: 준비는 다 됐니?
A: 응, 모두 가방에 꾸러 담았어.
B: 좋아! 출발하지구.
past nine : 9시가 넘은
Pack : 싸다, 꾸리다
get the show on the road
= Let's get going.
= It's high time we got started.

오하오우 니혼고 <863>
すっぴんが流行(はや)りなんだよ
'쌍얼'이 유행이야
A: 香(かお)りちゃん、今日(きょう)化粧(けいしょう)してないね。
どうしたの。
B: 最近(さいきん)、すっぴんが流行(はや)りなんだよ。知(し)
らないの?
A: へ、それにしても、チュレニング姿(すかた)でノメクはひと
すぎるよ。
A: 카오리짱, 오늘 화장 안했어. 어쩐일이야?
B: 요즘, '쌍얼'이 유행이야. 몰랐어?
A: 에이, 그렇다고는 해도 트레이닝복 차림에 노메이크업은 좀
심했다.
すっぴん : 화장을 안한 얼굴(쌍얼)
化粧(けいしょう) : 화장
流行(はや)り : 유행

니하오 쑹구위 <54>
大城市可能都这样
대도시는 모두 그럴 거예요
A: 首尔堵车严重。
Shou Er de ge che zhen yan zhong
서울엔 차가 너무 인 혼잡해요.
B: 上海也很严重。
Shang hai ye hen yan zhong
상하이도 인 혼잡해요.
A: 大城市可能都这样。
Da cheng shi ke neng dou zhe yang ba
대도시엔 다 이런 거예요.
B: 对啊对啊。
Dui a dui a
맞아 맞아.
A: 서울은 차가 너무 인 혼잡해요.
B: 상하이도 인 혼잡해요.
C: 대도시엔 다 이런 거예요.
D: 对啊对啊.
A: 서울 (Shou Er) 차가 인 혼잡해요
B: 상하이 (Shang hai) 인 혼잡해요
C: 대도시 (Da cheng shi) 인 혼잡해요
D: 对啊对啊 (Dui a dui a)

한자 이야기 <481>
饅頭(만두)
만두만, 머리 두
만두(饅頭)는 충청북 지역에서 겨울, 특히 정초(正月初)에
즐거먹는 명절음식이다. 밀가루나 메밀가루 반죽으로 겹집을
만들고 고기·두부·김치 등을 섞어 만든 소를 넣고 찌거나 삶아
먹는다. 만두의 고향은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만두는 이른
주먹만한 크기에 소가 들어있지 않은 둥근 밀가루 빵 모양이다.
소가 들어있는 것은 교자(餃子)라고 부른다.
삼국지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모잡고도 일곱 번 놓아주었다
는 '칠종칠굴(七縱七擒)'의 주인공 맹획(孟獲)은 민족(蠻族·남
쪽 오랑캐) 출신의 장군이다. 제갈량이 마지막에 그를 사로잡
고 돌아오던 길에 사천(四川)의 여강(潞江)을 건너려는데, 갑
자기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맹획이 말하
길 "수신(水神)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기는 하지
만, 칠칠(七七)은 사십구(四十九) 모두 마흔아홉개의 사람머리
를 바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제갈량은 고민 끝에 밀가루로
만인(蠻人)의 머리를 49개 만들어 성대한 잔치와 함께 강물에
던지자 강은 조용해졌다고 한다. 여기서 밀가루로 빚은 머리를
'만두(饅頭)'라고 불렀지만, 만인(蠻人)은 멸시하는 용어라고
하여 같은 음의 만두(饅頭)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